

# 한국사회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시리즈<完>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가능한가

### 자본주의와 임금노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 I. 서론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측면의 그리고 나아가서 관념의 수준의 불균형 또는 불균형의 요소들은 각 단계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 하나의 정지된 상태에 있거나, 그야말로 잔존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은 어떤 경우 자급한 발전단계의 산업부문의 발전(자본주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보다 높은 단계로의 자본주의적 발전, 심지어 한 사회에 대한 자본주의적 규정력조차 그러한 불균형 또는 불균형의 요소들을 하나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 왜냐하면 하나의 자본이라 할지라도 일단 고이온(높은 잉여가치의 착취)을 그 생존조건으로 하는 독점자본은 단순히 원료 공급지 또는 상품시장의 역할만을 하는 식민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를 직접 생산할,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보편적으로 발전한 그러한 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에

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부정부패가 없는 현실이며 나아가서 한국자본주의는 일제하 일본의 독점자본 그리고 해방후 미국의 독점자본의 영향 아래 곧바로 독점자본주의의 형태로 발전해온 것이다.

#### II. 자본운동의 일반법칙과 그 모순

본론의 구상을 개략적으로 충분히 정도의 생산력 발전 그리고 사적 소유 및 상품, 시장관계, 사회적 확립들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지만 그것들이 직접 자본의 운동법칙 그 자체는 아니다. 자본의 운동법칙을 자본주의적 가치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생산과 소비라는 이 두 과정을 지배하는 힘으로써 '축적'의 방식에 자본의 운동법칙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때 '가치'란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제1원인인 잉여는 소비과정 이전

에 발생하며 따라서 잉여의 보다 보편적 규정인 잉여가치는 소비 이전의 교환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고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 잉여를 소비하지 않고 다음과정의 생산을 위한 추가 자본으로 자신을 축적한다. 이 과정이 끝 오로지 잉여를 위한 생산, 즉 레닌의 표현에 따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자본가(토지자본가, 즉 지주 및 화폐자본가)를 포함해서)에 의해 배타적으로 전유되는 가치 가운데 특히 잉여가치의 일부 잉여가치의 나머지 부분은 지대, 이자이다. 불과 하다는 사실과 잉여가치는 오로지 노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자본가는 이미

반복되면서도 일정한 크기의 자본량을 단순재생산하는 자본은 이미 자본이 아니라 자본의 자격을 상실한, 곧 도태될 자본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전유된 잉여가치의 축적을 통해 무한축적운동을 하는 자본은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으면 안되는 임금노동자를 자신의 필수적인 존재조건으로 삼는다. 그리고 모든 생산수단이 자본화하는 조건에서 어떤 생산수단도 소유하지 못하는 임금노동자의 생존 역시 자본(가)없이 불가능하다.

자본과 노동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조건이면서 가치의 생산(노동)과 가치의 전유(자본)라는 착취-피착취의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한에서 자본의 확대재생산과정도 사회적으로 자본과 노동이라는 계급관계의 확

정단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다.

기계재도입의 도입에 따른 높은 생산성은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자본규모를 급증시키고 그러한 한도내에서 경쟁은 독점을 진행, 축적시키는 수단으로만 존재한다. 독점단계 자본축적방식의 주요한 모순중의 하나는 자유방임단계의 주요한 자본축적형식이었던 산업자본의 잉여보다 토지자본의 지대, 화폐자본의 이자소득이 증대되는 현상이다.

독점단계에서 지대, 이자는 일 반적으로 상승한다. 토지자본과 화폐자본가에 의한 지대와 이자 소득의 증대는 사회 총생산의 증대, 투기의 성행, 과소비, 향락산업의 발전 등 독점자본의 부패성, 기생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독점자본의 이러한 부패, 기생성은 민중계급뿐만 아니라 중간

#### 글쓰는 순서

1.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정책실패로 가중된 모순
2. 세계경제의 침체 및 불확실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자본주의와 임금노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 소비는 자본가의 이익이며, 중간계급, 계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제와 적절한 소비가 이익으로 그리고 노동계급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절제와 노동가치 이익으로 강요된다. 이때 사치와 근검, 절약한 한 사회의 일반적 도덕적 경계 아니라 계급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상대적 경계인 것이다. 노동자에게 사치품인 것이 중간계급, 계층에게는 전혀 사치품이 아니며, 중간계급, 계층에게 사치품인 것이 자본가 계층에게는

회적 총자본의 일부 또는 일주체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 IV. 한국사회의 독점자본과 민중경제

제국주의 또는 해외 독점자본의 규정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와 관계없이 민중경제의 파멸화, 주택, 토지문제 등 중간계급, 계층의 생활조건에 악화, 사회적 도덕규범의 혼란 그리고 과소비, 사치화한 산업의 발전 등의 사회적 모순과 산업관계의 침체 한 대립과 그에 따른 파시즘적 지배의 강화들은 독점단계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현상임이 명백하다.

문제는 이러한 제반 모순과 부정적 현상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실들이 근본적으로 독점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편성된 정치적,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독점자본 스스로가 자신의 이해를 폐기하고 보편적 경쟁의 부패를 통해 자유주의 경제원칙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허구이다. 또한 중간계급, 계층의 주도에 의해 그렇게 될 가능성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불행에도 명백하다. 자본주의의 독점적 발전이 역사의 합법칙상성에 있는 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인 자유경쟁 자본주의로서의 복귀란 비현실적인 허구적 구상일 뿐이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의 가장 극명한 담지자인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주도경제의 건설 가능성을 하나의 전망으로 갖게 된다. 그것은 단지 피폐화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의 회복 뿐만 아니라 독점단계로 발전한 자본주의의 사회, 경제적 모순,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망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하나의 원칙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한 구체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제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자본주의가 처한 세계경제적 조건과 그에 따른 경제적 특징, 계급관계 및 각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경제적 힘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대배분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의 본질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했을 때만이 역사의 파도가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진보를 향한 민중주도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유 동

(연세대 박사과정 정치학)

## 재벌의 독점강화 따른 계급갈등 심화돼 분배정의 지향하는 구조가 모순극복의 관건

르만 '생산'을 위한 '생산'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을 내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특징으로서 (생산의) 무정부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나타나는 모순의 가장 극명한 형태로서 공황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일찍이 잉여가 상품 형태로 생산되고, 자본에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샀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력에 대한 지배권 뿐만 아니라 잉여가치를 포함하여 그것들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가치를 배타적으로 소유한다. 그리고 잉여가치는 축적되어 새로운 자본으로 다음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본은 무한한 자기확대, 무한 축적, 불변의 관성으로 갖는다. 생산이

대재생산 과정이며, 곧 계급모순의 심화, 발전과정이다.

#### III. 독점단계 자본주의의 특징과 계급관계

자본축적 방식의 모순과 계급관계 그리고 국가의 역할등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은 자유방임단계에서 보다 오히려 독

점계급, 계층의 생존기반마저 위협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독점단계 자본주의의 사회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사회에 대한 보편적 독점규범의 계급적 분화 현상이다. 이것은 흔히 사회적 독점규범의 상실로 표현된다. 사치품의 생산과 고도의 향락 산업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무

오하려 필수품이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중간계급, 계층 또는 중산층의 존재는 도덕규범의 계급차별적 분화와 독점자본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 또는 수단이 된다. 독점자본의 가장 극명한 계급차별적인 파시즘이 중간계급, 계층을 동원한 정치, 사회운동을 조직하고 그들과 노동자계급 간의 이해대립을 강조하지만 기실 중간계급, 계층의 이해는 노동자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독점자본에 의해서 침식되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독점자본은 중산층을 끊임없이 해체시키면서도 적절한 소득의 중간계급(중산층 또는 중산층)을 형성시킨다. 이과정은 한편으로 노동자계급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철저하게 독점자본에 종속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안정된 소득의 조건과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이해의 대립적 관계를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낸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제현상과 근저에는 자본주의의 독점적 발전에 따른 계급의 분화과정의 전제된다. 자본의 집적, 집중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양적 확대 및 집중을 초래한다. 그것은 그들의 조직화와 계급운동의 조건을 만들어 내고 나아가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 사회운동을 가능케 한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 사회운동은 본 잉여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적, 경제적 힘으로 작용하고 나아가서 독점자본의 지배위기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 위기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상부구조 특히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까지 발전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대이산 폭력을 수반하는, 계급질서와 유지 또는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의 역할을 하는 전위적 정치기구가 아니다. 이제 국가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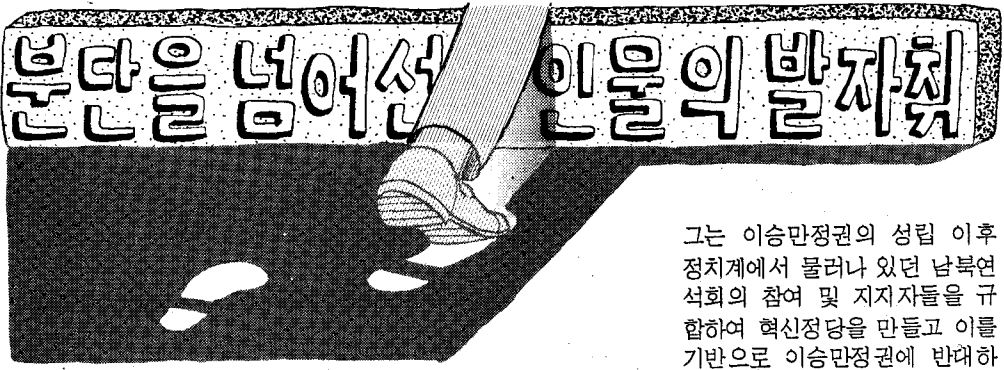


세력들이 참여하지 않고 분열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승만 정권의 타당성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진보당사건에 휘말려 정권에 의해 제거된다.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있어서 조봉암의 평화통일운동의 확산은 곧 미국의 대한전략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비록 조봉암은 현대사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진보당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은 4·19민중항쟁을 촉발하는 주체적인 조건의 하나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통일운동의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민중들의 가슴 속에 서 숨쉬며 살아있다.

김 영 미

(서울대 석사과정 국사학)



#### 조봉암의 평화통일운동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1950년 제3대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정권의 관권, 금권, 물리력이 총동원된 부정선거였다. 결과는 당연히 이승만의 승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에 서서 볼 때 하나의 기적이 있었다. 그것은 혁신정당을 이끌고 있는 조봉암이 2백만표를 웃도는 득표를 한 것이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었다. 이 2백만표는 바로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중들의 지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중도파세력인 김구, 김규식 계열까지 배제하면서 출범한 이승만정권은 철저하게 이합을 어둡으로 물고갔다. 사회전반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도 확대되었고 불균형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민중들은 신음하고 있었다. 특히 무력 복진통일에 의한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책을 주장하면서 민족을 분열의 길로 이끌려고 하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이승만을 반대하였지만 통일정책에서는 정권측의 반민족적인 통일방안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한 국전쟁이 라는 민족적 비극을 통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절실하게 염원하고 있는 남한의 민중들에게 복진 무력통일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운동은 절실한 삶의 문제였다.

이때 혁신세력의 단결을 통한 반이승만정권 투쟁과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조봉암이다. 이 땅이 더 이상 도탄에 빠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그는 이승만정권의 성립 이후 정치계에서 물러나 있던 남북연석회의 참여 및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혁신정당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이승만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민족을 평화적으로 하나의 조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화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그의 진보당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은 1954년 남북한의 대표가 만나 통일에 관하여 합의하였던 제

통일'과 '유엔감시하의 남북통일'을 주장하였다. 초기의 통일방안은 대체로 미국과 유엔에서 단독정부 수립시에 했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치른후 그의 통일방안은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즉, 중립국으로 구성된 국제감시위원회(인도, 스위스, 폴란드, 체코)의 협조아래 남북한의 대표로 구성되는 전한국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남북통일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이 통일방안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당시 민중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조봉암에 대한 2백만표의 지지로서 잘 나타난다.

둘째로 유엔의 권위를 사실상

## '무력 복침론' 거부, 북을 통일 주체로 인정 민중적 지지 바탕으로 반 정부투쟁 전개해

비호담과 스탈린 사후 소련의 평화공존론의 등장, 미국의 지역 통찰전략인 SEATO체제에 반대하여 비동맹을 선언했던 1955년의 반동외회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몇 차례 변화한다. 초기에는 '민주주의(남한)승리의 평화적 남북

부정하고 미국과 소련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중립국을 국제감시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한반도가 자주적으로 통일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 방안이 가지는 의의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혁신정당운동에는 모든 혁신세력이 동의하였지만 조봉암이 해방직후 미군정과의 타협 속에서 전향하였다는 점과 단독정부수립에 참여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혁신세력들의 부분적인 불신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당운동에는 모든 혁신

## 신용과 믿음을 드립니다 Just Composition Computer System

- 제1부 용산 전자단지에 맞을 내리고
- 제2부 하나된 투혼으로 솟구쳐
- 제3부 신용과 믿음을
- 제4부 동문의 이름으로 책임지겠습니다.

- \*SUNTAC MAIN BOARD만을 고집합니다.
- \*SAMTRON MONITOR만을 고집합니다.
- \*세진 Key BOARD만을 고집합니다.
- \*삼모 한글·한자 VIDEO BOARD 및 M.I 행랑 BOARD만을 고집합니다.
- \*TOWER CASE만을 고집합니다.
- \*신속한 A/S만을 고집합니다.

慶熙출신 일곱명이 모였습니다.

정재천(전자공학과 79) ZIM  
한상성(전자공학과 79) STM  
박성기(전자공학과 79) KTA  
박성철(전자공학과 79) 대전전자  
송준호(전자공학과 79) KBS  
최승환(화학 과 83) JCC  
문복용(원 학 과 83) SKC

우리의 사업정신은 언제나 신용과 믿음입니다.

J.C. Computer System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6-1 (신인상가 22동 2층 22호)  
TEL: 713-6918/9 FAX: 713-6918

## 군·행정병 모집 육군참모총장 위촉서

- 사무자동화  
Office Automation
- 일반 행정병 Chart
- 매월 1회 단독입영
- 상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무

인성 차트 학원  
732-5348  
735-3771

## 대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컴퓨터 특별강좌안내

군본 학원에서는 대학학생들을 상대로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한 컴퓨터 특별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계방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강: 12월 17일

다

1. 모집기간: 1990. 11. 26~12. 17
2. 학원개강일: 1990. 12. 17
3. 교육과정 안내

- 워드프로세싱: Typewriting & Processing
- 수학 및 통계적 문제: '방법: 선수교육 - 차기 과목'

[Program: FORTRAN - C  
Package: LOTUS - MS-Chart - SPSS/PC - C]

●취업대비 및 사무자동화:  
[Package: COBOL - C  
Package: MS-DOS - W/P - LOTUS - DBASE]

●프로그래밍: BASIC, FORTRAN, COBOL, Pascal, C

●특별강좌: PC-통신  
AutoCAD, Lib MUSIC

\*모든 과정 1개월 단위선택 수강가능  
★상급제에 위치한 소규모학원이지만 제반시설 및 준비를 완료하고, 시내 유명학원에서 느낄 수 없는 알뜰한 교육제비를 갖추고, 대학 재학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우수강사의 구성  
●실기위주의 철저한 개인지도에 의한 책임교육  
●1인 1대 실습을 통한 체계적 교육  
●정규수업시간 외에 개인 실습시간 제공  
●상급제 학원 부속이 위치한 편리한 교통

관인 상신컴퓨터학원  
(상계역·백산APT 뒤 서울신촌역 3층)  
입학안내: ☎ 933-3373, 938-5189

관인 상계컴퓨터학원  
(상계역·백산APT 뒤 상계역 3층)  
입학안내: ☎ 936-5749

## 第6回 全國大學生論文懸賞公募

신한은행은 1982년 7월 7일 순수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일반시중은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은행으로서 젊은이의 꿈과 야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계일류은행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저희 신한은행이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6회 전국 대학생 논문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의욕에 불타는 전국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신한은행 개요

- 설립일: 1982. 7. 7
- 은행장: 김 재 유
- 자본금: 5,160 억원

#### 공모요강

##### 1. 자 격

- 응모대상: (1991. 5. 31) 현재 한국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2. 공모주제 (아래 논제중 택일)

- 1) 社會主義經濟體制는 어디로 갈 것인가?
- 2) 우루과이라운드와 韓國經濟
- 3) 情報化時代의 企業經營戰略
- 4) 北方外交와 經濟協力의 課題

##### 3. 응모마감일

- 1991. 5. 31 (금) (우송식당 앞 우체국 소인봉까지 유죄)

##### 4. 당선작발표

- 1991. 6. 28 (금)
- 당선자 개별 통지 및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 5. 상 금

- 최우수작: 1위 이내 300만원
- 우수작: 2위 이내 각 100만원
- 가 격: 3위 이내 각 50만원
- 입 선: 5위 이내 각 20만원

- 출 수 선: 4조1,662억원(1990. 10월말 현재)
- 영업점망: 국내 86개소, 해외 6개소

##### 6. 응모요령

- 논문매수: 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7~8매 정도의 요약본 첨부)
- 제 출 처: 당행 본점 기획조사부(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및 지방소재 지점

##### 7. 특 전

- 최우수작 및 우수작 입상자는 당행 임명직원시 필기 시험문제 특전 부여 (단, 당행 제반 채용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함)

##### 8. 기 타

- 응모작 제출시 연락처를 명기하고 본인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함
- 입수된 논문은 일선 반환하지 않음
- 학규에 인제된 원고서는 사용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 본점 기획조사부로 문의함 (전화번호: 756-0505 교환 3040, 3041)

새벽의 꿈 키우는 보람  
신한은행